

眞理와 眞理사이

연구
여
적

신학적 진리나 사회과학적 진리가 '사회의 약속'에 의하여 포장된 진리인 반면
자연과학적 진리는 보편타당성면에서 뛰어난 진리다.

그런데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서 명예나 어떤 종류의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할 때 또는 시작단계임에도 결과에 대해 과대포장을 할 때
자연과학은 때때로 사회나 학문발전에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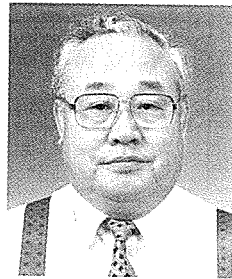
여 세대학교 정문과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문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고,
연세대학교 건너편 신호등 쪽
에는 영화선전용 게시판이 세
워져 있다. 원래는 시민용 게
시판이지만 항상 영화벽보만
붙여져 있어서 나는 영화선전
용 게시판으로 보고 있다.

성산대교로 가는 연세대 앞
도로는 금화터널을 통하여 광화문과 바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대로(大路)
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긴 편이다. 신호
를 기다리는 동안 언제부터인가 나에게서는 영화
선전 게시판을 보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무릎과 무릎사이' 희한

지난 20년동안 영화를 보기 위하여 영화관을
찾았던 일이 전무하지만, 신호대기 시간중에
영화선전 게시판을 본 덕택에, 나는 최근에 어
떤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관객을 끌기 위하여 어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언젠가 영화선전 게시판에는 '무릎과 무릎사
이'라는 희한한 영화제목이 붙어 있어서 나를



梁 隆

〈연세대 공대 생명공학과 교수〉

놀라게 했었다. 일반적으로 '무
엇과 무엇사이'라고 말할 때,
무엇과 무엇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을 나열시키는 법이다.
예컨대 '이론과 현실사이'라든
가 '애정과 증오사이' 등등...
그러하건데 '무릎과 무릎사이'
라고 동일 개념을 나열시켜 놓
았으니 내가 당황해 한 것도 무
리는 아니었다.

잘못된 표현으로 결론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가만히
생각하던 나는 '무릎과 무릎사이'는 잘못된 표
현이라고 결론지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사이'라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대비(對比)가 된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은 분명히 다르다.
지구의 중력선상(重力線上)에서의 좌표가 다
를 뿐만 아니라 생리적 신경 지배상황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가 늘씬한 모
델 아가씨들의 가지런하고 곱게 쭉 뻗은 다리
를 보면서 그 차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 증거로 남자들

이 뇌졸중을 일으켜 반신 마비가 될 때 일반적으로 왼쪽 다리쪽이 마비를 일으킨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오른쪽 다리쪽에 마비가 온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소박하게 믿고 있다.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眞理와 眞理사이’에 관한 것이다.

‘진리와 진리사이’는 분명히 같은 개념을 나열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국어대사전에 보면 진리(眞理)는 ①참된 도리 ②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지식 ③누구나 인정하여야 할 보편 타당한 지식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참된 도리나 논리법칙에 일치하는 지식의 경우 그것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 분야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누구나 인정하여야 할 보편 타당한 지식의 경우에도 ‘진리의 절대성(絶對性)’ 보다는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진리(眞理)로 군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교나 신학(神學)에 이르게 되면 진리는 ‘누구나 인정하여야 할 보편타당성’과 전혀 무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절대 진리’

회교원리주의자에게 ‘알라神’은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절대진리이며, ‘열반의 경지’를 지향하는 늙은 스님은 고통많은 구도의 길을 걷는다. 윤회설을 굳게 믿고 있는 힌두교도는 잘못 태어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요가로 정화시켜 다음 세상에서는 성골계급(聖骨階級)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오로지 무념무상의 요가에 정진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신앙은 ‘절대 진리’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각 ‘진리’인 것들은 그 ‘진리와 진리사이’가 지구

를 몇 바퀴 돌아도 모자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철학하는 자세로 연구

신학적 진리나 사회과학적 진리가 ‘사회의 약속’에 의하여 포장된 진리인 것과 비교하면, 자연과학적 진리는 보편타당성면에서 아주 뛰어나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존재하고 있는 자연세계를 사심없이 캐고 발굴하고 밝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고 있는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심(私心)없이 밝힐 때 자연과학은 진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서 명예나 어떤 종류의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할 때, 목적에 선행(先行)하여 연구의 과실(果實)을 따려고 서두를 때,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너무 좋아하는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으면서 위대한 결과들을 생산한 듯이 과대 포장할 때, 자연과학은 때로는 사회나 학문발전에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연구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로, 때로는 철학하는 자세로 수행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완벽하게 종합 재구성시키며 3차원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길만이 자연의 진리를 캐는 바른 길이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진리가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과학적 진리도 끊임없이 수정되어 간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새로운 진리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진리와 진리사이’가 늘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참된 진리’가 언제 얻어질지 모르나 어쩌면 참된 진리가 얻어지기 보다는 참된 진리를 얻으려는 노력만이 영원히 발전의 궤도를 회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㉓